

## 기독교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진로 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오 윤 선\*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기독교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 결정과 자아개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진로 의사 결정 수준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검사에 따라 자아개념 수준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남녀 기독교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법을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도구로는 진로 의사 결정과 자아개념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연구문제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변량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기독교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 결정과 자아개념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기독교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높여주고, 자아개념을 향상 시키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겠다. 자아개념 하위 영역 중 신앙적 자아와 의지적 자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진로 상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심단어** : 진로 결정, 자아개념, 진로상담, 의지적 자아, 신앙적 자아

• 논문 투고일: 2009년 09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3일

\* 한국성서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09년 10월 26일

## I. 여는 글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5%에 육박하지만 대학졸업 후 취업재수생 숫자는 매년 증가하여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고등인력의 낭비로 인한 국가와 사회적 손실은 물론 꿈과 희망을 갖고 사회에 첫 출발을 해야 할 젊은이들에게는 좌절과 절망적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는 교회 내에 청년 대학부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청년 대학부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교회지도자들의 대책과 대안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현재 직업세계(world of work)는 다양화·세분화·전문화로 인해 직업선택이 쉽지 않으며, 또한 자동화·기계화로 인한 고용 인력의 감소와 직업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한 기능인 경시 풍조, 직업·직무의 변화 등 장차 미래사회에서 현명하게 적응하고 생활의 준비 수단인 직업선택의 문제가 복잡해졌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해 청년실업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노동력의 양적, 질적 수준이 향후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청년실업의 고착화 현상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교과 교육만으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진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issue)로 등장한 현대산업사회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적합한 진로 선택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지 않는다면 다원화 사회에서 대학교육 현장은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직장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합리적인 진로 의식 함양과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직업 준비를 위한 진로상담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의사 결정 및 자아개념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진로상담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이루

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생들은 진로의사결정 성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생들은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I. 펴는 글

### 1. 진로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은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이바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함에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sup>1)</sup> 성경에서 의미하는 ‘부르심(calling)’ 또는 ‘소명(vocation)’은 어떤 직업(occupation)이나 상업적 일(business)등에 단순히 종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사야 42장 6-7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진로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차원에서 소명으로 인식하고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며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해야 함을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7장 17-24절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린도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전 7:17)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7장 17-2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모두 진로 또는 직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절에서 ‘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한번은 명사로, 한번은 동사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제새번역(NIV)에서는 명사를 situation 혹은 calling(소문자 c)으로 번역하고 동사형은 하나님의

1) 오성춘 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87-135.

부르심이라는 의미에서 Calling(대문자 C)이라고 번역한다.<sup>2)</sup>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당해 주신 상황 혹은 처지인 ‘부르심(calling)’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대한 소명(Calling)이 있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21절에서 소명과 진로의 관계를 조화시켜 말하고 있는데, 진로를 바꾸는 일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지만 부르심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22절에서 주 안에서 소명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일은 직위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소명은 하나지만 진로 즉, 일은 많기에 기독교인의 진로를 소명의 권위 아래 놓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소명은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되며, 소명의 관점에서의 진로와 직업의 성공과 실패는 세속의 척도 위에서의 평가기준과는 다르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21절과 빌립보서 4장 11-23절을 통해서 소명을 따를 때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서 자족의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불만 때문에 진로선택과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명적인 만족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바울은 소명에 따르는 진로선택과 직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22-23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즐거움으로 만족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에 비추어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걸는다’는 말은 삶의 방식에 대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매우 생생한 표현이다. 삶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걸음이며 시간의 진행이기에 인생은 결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명, 그리고 그 소명이 각각의 진로선택과 직업에서 표현되는 방법 역시 동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지금 부르심에 응하고 있다”고 계

2) Ben Patterson, *The Grand Essentials of Work & Worship*, 김재영 역, 『일과 예배』 (서울: IVP, 2003), 62-64.

속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다.<sup>3)</sup>

## 2. 진로상담의 개념 및 역사적 이해

진로상담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J. O. Crites는 진로상담을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을 통하여 개인이 현실과 접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심리적 방법의 하나를 구성해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수단을 제공한다”라고 하였고,<sup>4)</sup> D. E. Super는 “일의 세계에서 적절한 융화된 자신의 역할상과 자아상을 발전시키고 수용하여 그를 현실에 검토해 보고, 검토한 자체를 자신에 만족하고 사회에 이익 되는 현실로 전환하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sup> 한편 미국의 진로발달협회(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는 “내담자가 가장 적절한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자신과 환경의 이해를 종합하고 응용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소집단의 관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도와주는 과정, 즉 개인의 진로계획 및 준비, 직업준비와 선택, 진로문제의 해결과 적응 등을 단계적으로 도와주는 연속적인 과정이 내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진로상담의 정의를 종합하면, “진로상담은 내담자가 미래사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즉 교육, 직업, 가정, 신체, 사회, 이성, 성격, 도덕, 신앙문제를 합리적으로 탐색 및 결정하고 잘 적응하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라

---

3) Patterson, *The Grand Essentials of Work & Worship*, 66-74.

4) J. O. Crites,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81), 12.

5) D. E. Super,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eds. D. Brown, L. Brown & L. Brook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4), 192-234.

고 할 수 있다.<sup>6)</sup>

진로상담이 시작된 시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사회가 사회적 여건과 작업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된 185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진로상담의 초창기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부합되는 직종을 발견하여 개인과 직업을 결합시켜 주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1909년 5월에 생활지도의 창시자인 Frank Parsons가 『직업지도(Choosing a Vocation)』를 출판한 이후 진로선택 및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이 체계화되고 진로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인이 밝혀짐에 따라 진로상담의 전통적인 개념에 변화가 일어났다.<sup>7)</sup>

1900년부터 1940년까지의 진로상담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측정운동과 맥락을 같이 함을 볼 수 있다. 1927년 스탠포드 대학의 Edward K. Strong에 의해서 출간된 흥미검사 『The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은 진로상담자들에게 측정결과와 직업 연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1928년 Clark L. Hull에 의해서 출간된 적성검사 (Aptitude Testing)는 표준화된 적성검사를 통해서 직무만족과 직무성공을 위한 직업지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39년에는 Williamson에 의해서 『How to Counsel Students』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Parson가 제시한 진로지도의 원리를 확대시켰으며, 지시적 상담 기법을 통한 진로상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리고 1942년 Carl R. Rogers의 『상담과 심리치료(Counseling and Psychotherapy)』는 진로상담에서 인간발달과 생애경험의 광범위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군 당국은 퇴역 군인들로 하여금 시민생활로 원활하게 되돌아 갈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

6) 김충기 외,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2006), 17-19.

7) 김충기 외, 『진로상담』, 17.

가운데는 미래의 교육 및 직업계획에 관한 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로지도에 대한 요구가 점차로 확산되면서 국회는 1946년에 George-Barden법을 통과시키게 되었는데, 이 법은 상담자 훈련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주에 보다 자유로운 자금배분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초기에 국회에서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목적으로 인력에 관한 법령(manpower legislation)을 통과시켰고, 지역사회에 기관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배치상담에 활용할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1963년의 직업교육법(Vocational Educational Act)은 직업지도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sup>8)</sup>

1976년 설립된 국립직업정보조정위원회(National Occupation Coordinating Committee: NOICC)는 4개의 연방기구 즉, 노동통계청, 고용 및 훈련부, 직업 및 성인교육국, 국립교육통계센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르러 NOICC는 국가진로상담 및 진로발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실천단계는 요구분석, 지역 진로발달 표준 설정, 자원인사 및 운영요원의 모집, 운영요원에 대한 능력개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기획 및 실행 등의 요소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NOICC에서는 1992년에 국립진로개발훈련원(National Career Development Training Institute: NCDTI)을 설립하여 각 주에서 학생들과 성인들을 도와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sup>9)</sup>

우리나라에서 진로상담이 실시된 것은 1978년 이정근의 저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에서 진로 상담방법에 관한 내용이 약간 소개된 이후 1989년 김충기가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라는 저서를 내놓음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3년 재단법인 청소년 대화의 과장이 개원하면서 박경애 등을 중심으로 진로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진로상담교사와 전국지도청소년 상담실에서 수십 차례의 위

8) 김충기 외, 『진로상담』, 431-433.

9)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2003), 33-37.

크습을 개최하여 보급되었다. 1995년에 들어서서는 김충기, 김병숙의 공역인 『진로상담: 기술과 기법』이란 역서를 통해 진로상담기술의 일면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1994년에 전라남도 교육연구원에서 방진주에 의해서 “진로상담의 기법과 과정”이라는 연구물이 발표 되었다. 그리고 1996년 9월 19-20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진로상담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면서 진로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진로상담은 시작단계에 있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구가 한창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대학에서의 진로상담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진로발달을 위해 교과활동, 특기·적성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한 진로교육과 함께 중요한 생애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이며, 그들이 당면한 진로와 직업준비에 관련시켜 다양한 진로정보의 제공, 자기 및 직업 세계이해와 탐색의 과정, 진로계획, 그리고 진로결정을 돕는데 역점을 둔다.<sup>11)</sup> 특별히 기독교대학들을 위한 직업 및 진로상담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직업 소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더불어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 3. 대학생의 진로 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대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 1) 선행연구 고찰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개인의 특징과 의사결정 환경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고향자의 진로상담과 통제집단간의 상담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진로 의사결정 능력에서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 간의 상담효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적 유형과 직업계획수준, 전공에 대

10) 김충기 외, 『진로상담』, 440-441.

11) 지용근 외, 『진로상담의 이해』 (서울: 동문사, 2005), 42-43.

한 확신 및 이해 수준에 있어서는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김판환의 연구에서는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 계획수준과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수준에서 진로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적응 수준에 있어서는 진로상담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간의 비교연구들을 보면 진로상담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만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이는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개인 및 집단 진로상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진로상담을 통해서 소명과 은사에 따른 대학생들의 진로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진로상담에 있어서 진로의사결정과 더불어 자아개념은 진로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D. E. Super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자아개념과 일치한 진로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sup>14)</sup> 즉, 자신이 느끼고 생활하던 바를 살릴 수 있는 진로를 택한다는 것이다. W. Lawrence과 D. Brown의 연구를 보면 대학생들의 진로성숙과 자아개념의 관계 연구에서 두 변인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하지만 D. E. Ducat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자아개념이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김

12)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대학교 대학원, 1992), 21-39.

13) R. D. Smith & J. R. Evans. “Comparisons of Experimental Group Guidance and Individual Counseling as Facilitators of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1973): 202-208; K. L. Rowe, *Career Counseling with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Denton, TX.: University of North Texas, 1995), 155-159.

14) D. E. Super,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88-92.

15) W. Lawrence & D. Brown,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1976): 43-52.

16) D. E. Ducat, “Cooperative Education, Career Exploration, and Occupational Concept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 (1980): 195-203.

충기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줌으로써 현명하고 합리적인 진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sup>17)</sup>

## 2) 진로상담 프로그램

기독교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 결정과 자아개념에 대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교육 목표 → 관련 문헌 연구/기존 프로그램 분석 → 수혜자 요구 조사 → 교육 내용 선정 → 프로그램 시범 개발 → 프로그램 실험 실시 → 프로그램 효과 검증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최종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 교육 내용 선정 순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 프로그램을 위해서 S. B. Barker<sup>18)</sup>, D. G. Sprague & D. J. Strong<sup>19)</sup>, 이재창<sup>20)</sup>, 송재홍·천성문<sup>21)</sup>, 김현수<sup>22)</sup>, 김지영·이현림<sup>23)</sup> 등의 연구물을 참조하여 기독교 대학생의 진로 의사 결정과 자아존중감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재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따른 각 회기별 상담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 
- 17) 김충기, "진로 발달 이론에 관한 연구: 진로 상담을 위한 기본전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3권 (1991): 51-93.
  - 18) S. B. Barker,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College Career Guidance Cours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22 (1981): 354-358.
  - 19) D. G. Sprague & D. J. Strong, "Vocational Choice Group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1970): 35-45.
  - 20) 이재창, "대학생의 진로 탐색을 통한 진로 결정",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5집 (1987): 1-20.
  - 21) 송재홍 외, "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의사 결정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서강대학교, 「인간이해」 제17집 (1996): 43-108.
  - 22) 김현수, "대학생을 위한 진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연구」 제15권 4호 (2001): 139-155.
  - 23) 김지영 외, "진로 의사 결정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 의사 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1호 (2002): 161-178.

〈표 1〉 진로상담 프로그램

회기	상 담 내 용
1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에게 집단 참가 이유와 자기소개를 통해서 상담에 참여하게 되는 목적과 동기, 기대 수준 확인(Rapport 형성)</li> <li>• 상담받기 전 진로의사결정 및 자아개념 수준 알아보기 (사후검사 후 변화 알아보기 위함)</li> <li>• 프로그램 소개하고 집단 지도자 소개</li> <li>• 내담자의 개인 데이터를 통해 진로인식 정도를 파악</li> <li>• 내담자 신앙관 및 태도에 대한 점검</li> </ul>
2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회기는 진로의사결정 및 자아개념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ACDM (진로의사결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와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한다.</li> <li>• 두 검사 결과 수준에 따라서 적용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게 한다.</li> </ul>
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담자의 진로적성과 성격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Holland의 진로탐색 검사(SDS)와 한국판 MBTI를 집단으로 실시한다.</li> <li>• 검사도구 분석과 더불어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한 자각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나의 인생, 나의 선택)</li> </ul>
4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공간에서 자기 가족, 친구 이웃을 탐색한다.</li> <li>• 생활공간에서 자신의 위치와 주요 역할행동을 파악한다.</li> <li>• 자신의 위치와 역할행동이 진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li> <li>• 신앙적 관점에서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이해하기.</li> <li>• 직업의 소명의식에 관한 기독교적 탐구.</li> <li>• 자신에 대한 이해, 수용, 개방하는 체험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li> </ul>
5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욕구와 직업의 다양성에 따르는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하기</li> <li>• 직업선택을 위한 가치관 탐색.</li> <li>• 자신의 행동이나 의사결정 등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가치 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li> </ul>
6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소질 평가(소명, 흥미, 적성)</li> <li>• 직업 비전에 대한 검토</li> </ul>
7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기 진로목표 설정</li> <li>• 진로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수립</li> </ul>
8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탐색 활동 평가</li> </ul>

#### 4.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연구일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기독교대학생들로서, 의사결정과 자아개념에 관한 기독교상담 프로그램의 모집 공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25명의 학생으로 구성 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 7월 3일-9월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매회 소요시간은 90분이었다.

##### 2)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본 연구를 위한 진로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로는 Duck, Daniels(1985)에 의해 수정 보완된 Harren(1979)의 진로 의사결정검사(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중 진로 의사결정수준(Part B-D) 부분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수준을 '그렇다'와 '아니다'로 평가하는 자기 보고식의 64개 문항들로 나누어졌으며, Cronbach  $\alpha$ 계수는 .7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코리안테스팅 센터에서 제작한 자아개념 검사(정원식, 1965)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본래 9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서로의 중복을 피하고 기독교 대학생인 것을 감안하여 신앙영역을 포함해서 총 20문항으로 최종 선택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아개념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집단별로 분류하고, 하위영역별로 채점을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의 차이점수에 대해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 5. 연구 분석결과 해석 및 논의

##### 1) 연구 분석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사전-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아래 각 하위변인의 평균 및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진로 의사결정 수준 하위변인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를 보면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에서 사전검사 평균점수는 6.48, 사후 검사 평균 점수는 13.87로 나타났다.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는 3.31(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 집단상담의 진로 의사결정 수준 사전-사후 검사결과 분석

진로 의사결정 수준 하위변인	집단	M	SD	df	t	p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	사전	6.48	2.87	34	3.31	.002 *
	사후	13.87	3.77			
학교에 대한 적응	사전	11.21	4.27	34	2.68	.010 *
	사후	15.63	5.13			
직업계획	사전	6.74	3.13	34	2.19	.031 *
	사후	13.48	3.36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사전	8.08	3.97	32	1.42	1.71
	사후	16.12	4.08			

\*  $p < .05$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적응에서 사전검사 평균점수는 11.21, 사후 검사 평균 점수는 15.63으로 나타났다.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는 2.68(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계획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는 사전 6.74, 사후 13.48로 t검증 결과는 2.19( $p < .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대학생들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 의사결정 수준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전공에 대한 확신 및 이해 외에서 긍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아개념 사전-사후 점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아래 각 하위변인의 평균 및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신앙적 자아의 사전 평균은 13.65, 사후 평균은 14.57로 t-검증 결과는 2.15( $p < .01$ )이며, 의지적 자아에서의 사전 평균은

13.73, 사후 평균은 15.29로 t-검증 결과는 2.22( $p < .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자아와 신체적 자아, 그리고 가정적 자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3〉 집단상담의 자아개념 수준 사전-사후 검사결과 분석

자아개념 하위변인	집단	M	SD	df	t	p
신체적 자아	사전	12.81	1.74	32	.42	.634
	사후	13.12	1.89			
신앙적 자아	사전	13.65	1.24	34	2.15	.039 *
	사후	14.57	1.74			
의지적 자아	사전	13.73	1.84	34	2.22	.034 *
	사후	15.29	2.60			
가정적 자아	사전	16.60	1.81	34	.27	.804
	사후	16.78	2.28			
사회적 자아	사전	14.02	1.76	34	1.37	1.74
	사후	14.79	1.56			

\*  $p < .05$

## 2) 논의

기독교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 결정 수준 변화의 차이 검증에서 진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 학교에 대한 적응이 직업계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는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P. Sherry & K. Starey<sup>24)</sup>와 K. L. Rowe<sup>25)</sup>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지영 · 이현립<sup>26)</sup>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앞 선 선행연구에서 실시되지 않은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 부분이 강조 되었는데 이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24) P. Sherry & K. Starey, "Career Exploration Groups: An Outcome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1984): 155-159.

25) Rowe, "Career Counseling with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48-58.

26) 김지영 외, "진로 의사 결정 프로그램이 진로 의사 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161-178.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는데, 한국교회 청년부 및 대학부에서 진로상담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기독교대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선한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 대한 적응 수준 향상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애착심과 학교생활을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 적응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위해서 적응 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업계획은 진로상담의 핵심인데, 진로상담을 통하여 진로 고민이 사라졌다는 것은 앞으로의 진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기독교대학생들의 자아개념 수준 변화의 차이 검증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신앙적 자아와 의지적 자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는 김현수<sup>27)</sup>의 선행연구인 도덕적 자아와 의지적 자아가 본 연구의 신앙적 자아와 의지적 자아와 명칭의 차이는 있지만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본다. 또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적 자아와 의지적 자아 수준이 높아진 것은 진로의사결정과정도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 및 기독교 기관에서 기독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도하는 것은 아주 유용하고, 진로지도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27) 김현수,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149-152.

### III. 닫는 글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로상담은 기독교대학생들의 진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직업소명에 대한 이해, 학교에 대한 적응, 직업계획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둘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로상담은 기독교대학생들의 자아개념에 있어서 신앙적 자아, 의지적 자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 교회 내에서 진로결정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적용한다면 기독교대학생들에게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효과만을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진로상담 프로그램과 개인 특성을 고려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진로선택에 부모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로상담 프로그램 내에 부모 참여 부분을 첨가시켜 내담자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과 자아개념에 대해 부모가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 고향자.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대학교 대학원, 1992.
- 김지영 외.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이 진로의사결정 수준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1호 (2002): 161-178.
- 김충기.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동문사, 2003.
- 김충기. “진로발달 이론에 관한 연구: 진로상담을 위한 기본전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3권 (1991): 51-93.
- 김충기 외. 『진로상담』. 서울: 태영출판사, 2006.
- 김현수.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 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 연구」 제15권 4호 (2001): 139-155.
- 지용근 외. 『진로상담의 이해』. 서울: 동문사, 2005.
- 이재창. “대학생의 진로탐색을 통한 진로결정”.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5권(1987): 1-20.
- 송재홍 외.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의사결정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강대학교. 「인간이해」 제17집 (1996): 43-108.
- 오성춘 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Barker, S. B.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a College Career Guidance Course.”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22 (1981): 354-358.
- Patterson, Ben. *The Grand Essentials of Work & Worship*. 김재영 역. 『일과 예배』. 서울: IVP, 2003.
- Crites, J. O.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Book, 1981.
- Ducat, D. E. “Cooperative Education, Career Exploration, and Occupational Concepts for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 (1980): 195-203.
- Lawrence, W. & Brown, D. “An Investigation of Intelligence, Self-Concept, Socioeconomic Status, Race, and Sex as Predictor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1976): 43-52.
-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979): 119-133.

- Rowe, K. L. *Career Counseling with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Denton, TX.: University of North Texas, 1995.
- Smith, R. D. & Evans, J. R. "Comparisons of Experimental Group Guidance and Individual Counseling as Facilitators of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1973): 202-208.
- Sherry, P. & Starey, K. "Career Exploration Groups: An Outcome Study."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1984): 155-159.
- Sprague, D. G. & Strong, D. J. "Vocational Choice Group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al* (1970): 35-45.
- Super, D. E.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eds. D. Brown, L. Brown, & L. Brook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4).
- Super, D. E.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1963.

【 Abstract 】

The Effect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tatuses and Self-concept of Career Counseling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Yoon Sun Oh**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career counseling, which used a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concept statuses, on career Counseling program of Christian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first,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career decision-making statuses of before-after, second, what differences exist between the self-concept statuses. for these purpose, we carried out the career counselling program eight times with the single group before-after against 25 students of Christian university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The main methods of statistic were frequency analysis, t-test, stepwise regress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was .05.

According to the results, we can draw conclusions as follows: The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students and the test of self-concept. This counseling program improved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students and points of will-self concept, faith-self concept among the sub-elements of self-concept.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concept, career counseling, will-self concept, faith-self concept